

## 그린투어리즘에서 지역식품체계로:

대도시 인근 농촌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춘동\*

### 1. 서론

농업생산의 경쟁력 증대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되었다. WTO 체제 하에서 농업과 농촌이 독자적인 근대주의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고,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제에 편입됨에 따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제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사회가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여가와 레저에 대한 욕구,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웰빙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 문화의 다양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등이 증대, 확산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식품체계의 지배력 강화에 따른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농업은 국민을 위한 기본적 식량 공급의 기능을 상실하고 고사의 위기에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린투어리즘(greentourism)은 침체된 농업과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 구조조정의 경험에서 농촌의 활로를 모색해온 정부는 그린투어리즘에 정책적 힘을 쏟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지역식품체계(local food system)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그 실현을 위한 실천적 시도들(도농공동체 운동, 농민장터, 지역농산물에 의한 학교급식운동 등)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다양성과 지역성, 환경친화성 및 신뢰성에 기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소규모 농업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식품체계가 소품목 대량생산과 화학농법, 유전자조작 농업, 전 지구적 규모를 전개되는 유통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 식품체계(global food system)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과 농촌사회를 관광자원으로 보는 그린투어리즘과 위기의 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여겨지는 지역식품체계는 별개의 항목으로 인식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전자에 대한 연구는 도시민들의 여가와 휴양을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농촌의 어메니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품화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이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는 농업과 농촌이 갖는 본원적 기능인 먹거리 공급로서의 기능을 간과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여기서 먹거리는 관광자원의 한 항목일 뿐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지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유통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 본원적 기능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지역식품체계 연구와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

지금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마치 농촌을 살리려는 유일한 방안이기 나 한 것처럼 경쟁적으로 그린투어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1)</sup> 이미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어 왔으나 농업의 존속이 전제되지 않는 농촌활성화 정책은 공허해 보이기만 한다. 또한 실제로 농업이 존속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농업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별개의 영역에서 연구되어 온 그린투어리즘과 지역식품체계를 연관시켜 그린투어리즘이 지역식품체계 형성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농촌마을 수준에서 전개되는 그린투어리즘이 마을공동체의 재구성, 농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고령자,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대한 재발견, 새로운 농업체계의 등장, 다품종 소량생산의 판로 확보, 소규모 농업체계의 존속 보장, 도시민과의 상호신뢰에 바탕한 안정적 농산물 유통 네트워크의 형성 등 일련의 변화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식품체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 2. 그린투어리즘과 지역식품체계

### 1) 그린투어리즘

1984년 관광농원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애초부터 소득원의 다양화를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에 목적을 두었다. 관광농원개발 사업은 정부의 주도와 재정적 지원 아래 전개되었는데 주로 관광농원과 민박마을, 농어촌 휴양단지 형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

1) 2002년부터 시작된 농촌관광마을 육성정책에 의해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등에 의해 농촌관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2006년 현재 380개에 이르며, 농협에서도 243개 마을을 팜스테이 사업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2007: 276-7).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관광개발사업은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 어져 개별적 시설의 확대는 가져 왔으나 지역산업이나 다양한 농촌자원과 연계시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유리되고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하드사업 중심의 개별단위 하향식지원” 방식의 농촌관광 정책이 1990년 대 후반 이후 변화하여 “소프트사업 병행의 지역단위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었다(유정규 2003). 이 시기에 들어서면 정책대상이 개인→집단, 농가→마을로 변화하고, 정책추진방식이 하향식→상향식, 공모제로 변화하고, 정책내용의 성격이 hard 중심→soft 분야의 병행 지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유정규 2003).

정기환은 이러한 변화를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도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가 정리하는 그린투어리즘의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광을 위한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농촌지역사회의 인문,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광대상으로 한다. 둘째, 도시 관광객이 농촌을 방문하여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그린투어리즘은 기본적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풍요로움과 문화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이므로 지역가꾸기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정기환 2001:142). 그는 이러한 그린투어리즘의 기본 컨셉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상품화하는 것이며 도시주민들과의 교류, 체험, 체재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고, 마을주민 다수의 참여, 체험교류 중심, 노령화된 농촌주민의 동참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정기환 2002: 14). 이렇듯 정기환은 그린투어리즘의 궁극적 목적을 농촌지역 활성화에 두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으로 도농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농촌마을의 환경정비, 농촌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문화의 창달 등을 달성하여 농촌지역

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덕병과 조록환도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을 농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농촌개발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기환과 달리 직접적 경제효과보다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촌사회의 사회자본의 증가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그린투어리즘에서는 지역주민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사회 주민공동체가 합의, 자발성, 창의를 바탕으로 주체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농촌주민의 주체화 과정을 통한 사회자본의 증대가 효과적인 농촌개발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박덕병 · 조록환 2002: 6-13).

그린투어리즘이 직접적으로 농촌지역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위의 논의들과 달리 유정규, 송미령 · 성주인 등은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을 지역주민이 생산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에 두고 그린투어리즘은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유정규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지역진흥의 핵심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해 먼저 ‘농촌지역이 아닌 잠재적, 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증대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린투어리즘은 증대된 가치의 활용방법, 즉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농촌지역이 아닌 잠재적, 사회적 가치에는 농촌다운 경관조성, 자연친화적 주거공간 마련,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전통문화의 보전 등이 포함되지만, 그는 특히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도농교류로 상호이해의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생산한 생산물(도시소비자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매가 구축될 때 비로소 그린투어리즘은 지역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유정규 2003: 19-22).

송미령 · 성주인은 그린투어리즘에 성공한 몇 군데 농촌마을의 사례

를 분석하면서 이들 마을의 성공은 소득의 증대에 있고 소득의 핵심은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그린투어리즘의 프로그램들은 이를 위해 마을을 마케팅하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린투어리즘은 도농교류를 통해 관계마케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말이다(송미령 · 성주인 2005: 183-193). 이밖에 임경수(2003: 182)는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이 관광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동주(2003: 206)는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이 산지직거래와 연결됨으로써 그린투어리즘과 자산지소(地產地消)운동이 결합되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고 있다.

이상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들은 농촌지역활성화의 직접적 수단이 된다고 보는 입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는 그린투어리즘 선진국의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그린투어리즘의 당위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이론과 사례를 통해 그린투어리즘이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농촌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농업은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자원에 불과하며 상품화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식품의 공급이라는 농업의 본원적 기능이 그린투어리즘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색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후자는 친환경농업을 지역개발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보고 그린투어리즘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이 관계마케팅을 실현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들 논의는 그린투어리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이 궤멸의 위기에 처하고 따라서 농촌마을이 하나의 정상적 사회단위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린투어리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에 의해 자극된 농업이 어떻게 재구조화되는지, 또 이것이 농촌마을의 구조와 노동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소위 관계마케팅에서 관계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관계의 구축에 의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는 그린투어리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정책 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2) 세계식품체계와 지역식품체계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세계식품체계(Global Food System)가 초래하는 식품 안전의 문제와 지역농업체계의 붕괴의 문제에 대응하여 실천적, 학문적 차원에서 지역식품체계(Local Food System)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식품체계의 핵심에는 종자부터 생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체인화하여 지배하는 세계적 농식품 복합기업들이 있다. 이들 농기업들은 종자, 영농, 시비, 방제 등을 담당함으로써 식품체인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Heffernan 1997). 이들 농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 종자를 개발하고, 터미네이터 기술을 통해 이를 독점, 통제한다(김종덕 2005: 104). 또 이들은 세계적 규모로 농업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조직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의 특화된 농업을 실현하여 세계시장에 공급할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대규모의 특화된 농업은 세계화되고 집중화된 시장에 가장 적합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Halweil 2006: 72)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농산물의 집중화된 세계적 유통망을 형성하여 가장 값싼 곳에서 구입하여 가장 비싼 곳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천, 수만 km의 이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는 완전히 단절되며, 생계의 필수품인 식품의 상품화가 완결된다.

이러한 세계식품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첫째로, 유전자 조작, 대규모 단작화에 따른 농약과 비료의 과다투입, 장거리 수송을 위한 식품보존제, 방부제 처리 등은 식품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둘째로 특화되고 획일화된 농업은 지역과 고리되고, 지역을 상업성이 높은 특정 작물의 공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과 독특한 농촌풍경과 식품섭취의 지역적 특성이 소멸되며 지역의 전통적 문화가 파괴된다. 마지막으로 소농체계를 붕괴시켜, 소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동체가 사라지게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사회조직은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지역경제는 궁핍화한다. WTO, 한미 FTA체제 하에서 우리 농업에서도 점차 세계식품체계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지역식품체계(local food system)는 이러한 세계식품체계에 대항하는 대안적 식품체계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식품체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이다. 지역식품체계는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증하면서 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일정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며, 직거래나 공급체인의 단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유통되는 식품”의 체계라고 정의된다(Trobe 2002: 13). 따라서 지역식품체계의 핵심은 (지역 내의) 농민과 가공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Jarosz 2000; 김종덕 2005: 107)이다.

이와 같은 지역식품체계에서 이상적인 형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이다.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관계의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을 통해 기존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익명적 불확실성

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다(Lamine 2005; 허남혁 2006b: 3).<sup>2)</sup> 직거래를 통한 지역식품체계는 농촌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첫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적 접촉을 통해 인간적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된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소비자는 생산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되면서 상호이해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이 확대될 수 있다.<sup>3)</sup> 사회자본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기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새로운 사회자본의 형성은 세계식품체계에서 붕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둘째로, 지역식품체계는 환경·지역 친화적 농업의 회복과 존속을 가능케 한다. 지역식품체계는 영농의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영농을 고무하며(Gradwell et al. 1999), 지역경관을 보존하는데 기여한다(Hendrickson 2001; 김종덕 2006: 114).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유기농업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들을 지역의 생산자들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을 다각화해야 한다.

셋째로, 지역식품체계에서는 세계식품체계에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지역특산 농산물의 소규모 생산이 활성화된다. 이와 같은 다품종 소량 생산은 소농생산체계에서 가능한 것

- 
- 2) 지역식품체계에 대한 정의와 이론을 정리한 Venn et al.(2006: 253)은 그 속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재배태시키는(re-embed) 새로운 경제적 공간 내에서 소비자, 생산자와 먹거리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 둘째, 비관행적인 공급 및 유통망(산업적 유통과 기업 통제 하의 먹거리 체계로부터 분리됨), 셋째, 사회적 배태성(embeddedness) 원칙의 채택(신뢰, 지역사회의 원칙 위에서 형성되거나 작동하며 특정한 지리적 위치와 연결됨), 넷째, 품질 개념에 토대를 둠(관행적이든 대안적이든, 품질을 증진하여 전통이나 유산을 보전함).
  - 3) 직거래란 중간 상인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경영학적 개념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사회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자본 형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Putnam 2000; 한도현 2005).

이며, 소농생산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소농의 존속을 돋는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는 대규모 단작체계로 사라진 생물다양성, 지역마다 독특했던 농촌풍경과 식품섭취의 지역적 특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특색 있고 전통적인 문화가 회복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식품체계는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지역농업과 소농민의 생존을 가능케 하여 지역 사회의 공동화를 방지하며, 농업이 생산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김종덕 2004a). 즉, 소규모 지역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치들이 지역경제 내에서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생산자와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한다(김태연 2005: 198). 나아가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켜 지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

이상과 같은 지역식품체계의 구체적 존재형태로는 구미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farmer's market, CSA: 공동체지원농업, 가판대 직거래, 농장내 직접판매-농장판매장, 집 배달, 식품박스 마케팅, 학교급식 직거래 등)와 그린투어리즘, 농장체류, 농장방문, 농작물의 임대 또는 분양, 수확체험 등을 통한 지역식품체계 등을 들 수 있는데 구미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을 중심으로 지역식품체계에 대한 이론화 작업과 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지역식품체계가 지산지소, 산소제휴 등으로 표현되며 이에 대한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개가 구미와 일본에서 진행되는 이론화 작업과 사례연구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지역식품체계의 구체적 형태에 관한 연구들을 조금씩 내어놓고 있다. 김종덕의 미국 농민시장 연구(2004a), 박덕병(2005a, 2005b)과 김종덕(2004b)의 미국 CSA 연구 등은 외국 사례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의의를

갖고 있으며,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생협 연구들도 넓은 범주에서 모두 지역식품체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철규(2004)와 김홍주(2006)의 연구는 생협에 관한 연구이지만 지역식품체계 관점에서 좀 더 진전된 생협 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부지역에서 시도되어 온 농민장터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등에 대한 보고서들,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관련 연구들도 지역식품체계 연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허남혁 2006a).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역사회 식품체계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사회 제도적인 형태로 체계화되기보다는 사회운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이에 관한 연구도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보다는 당위론의 제시나 실태조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연구의 중심이 소비자들에게 놓여지거나 일부 생산자 조직에 한정되어 정착 중시되어야 할 지역사회, 좀개는 농촌마을 공동체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식품체계가 초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단위에서의 변화, 예컨대 생산체계의 변화, 노동체계의 변화, 주민들 간 사회·정치관계의 변화, 도시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새로운 사회자본의 형성 등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지역식품체계 성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역식품체계에는 정형화된 형태가 있을 수 없다. 지역의 사정,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시도되고, 그것이 지역에 적응하면서 다양하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판대 직거래, 농장 직거래, 수확체험 직거래, 회원농업 직거래 등과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지역식품거래, 농작물의 임대 혹은 분양을 통한 직거래, 수확체험과 구매를 통한 직거래(Pick-Your-Own)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은 지역식품체계의 이념 실천과 무관하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행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지역식품체계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그린투어리즘의 틀 내에서 관광 상품으로 제공되는 수확체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역식품체계의 형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지역식품체계의 형성과정을 마을단위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흔히 그린투어리즘 연구자들은 지역주민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과 농촌 주민공동체의 합의와 자발성, 창의가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자본이 증대된다는 것 등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과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거의 없다. 실제 마을 주민들의 참여 행위와 그 과정, 주민과 방문객 간의 그리고 마을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밝힌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식품체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식품체계는 신뢰와 지역사회의 원칙 하에서 형성되거나 작동하면서 특정한 자리적 위치와 연결됨을 강조하지만 도시소비자와 농업생산자 간의 만남의 장(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해서 형성되는 지역식품체계의 경우는 농촌마을이 될 것이다)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신뢰 축적의 과정,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와 역사, 전통 및 의미체계, 담론 등의 작동 메카니즘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 마을단위에서 도입되는 정치적 과정, 마을 공동체 성원들의 참여과정, 마을공동체의 재발견과 재구성의 과정, 생산체계와 노동체계의 변화과정, 궁극적으로 지역식품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등을 참여관찰을 통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로 밝혀 보려고 한다.

### 3. 팜스테이 구암마을

조사지 구암마을은 행정구역상 대구시 동구 미대동 12통으로 편제

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약 200년 전 ‘현동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향하여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1958년 이전까지는 경북 달성군 공산면 소속이었으나 1958년 1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 1월 1일 다시 경북 달성군에 환원되었으나 1981년 7월 1일 대구의 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에 편입되었다. 마을이름은 마을 옆에 거북과 같은 바위가 있었던 데서 유래하여 처음에는 귀암(龜岩)이라 하다가 세월이 흘러 현재는 구암(九岩)이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팔공산 지역의 초입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팔공산은 광활한 지역에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등 고찰들과 갓바위, 통일대불 등 기복신앙의 성지로 유명하여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등산객과 참배객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팔공산으로 들어와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바람에 깊은 산속에 텐트촌이 넓게 들어차 있고, 매일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진풍경이 펼쳐질 정도로 대구시민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따라서 이 마을은 직접적 관광지가 아니라서 도시민들과의 접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커서 발전 혹은 변화의 가능성도 그만큼 큰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을전체가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발전의 가능성을 제한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 시설채소 및 과수농원을 조성해 왔으며,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 친환경 농사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 마을의 동사무소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69가구, 인구는 남자 100명, 여자 93명(2006년 8월 8일 현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공산농협의 통계에는 56가구에 주민수 180명 혹은 45가구에 120명으로 잡혀

있고, 마을주민들도 전체가구수를 경우에 따라서 45가구 120명, 또는 34가구 105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구수와 인구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산출되는 이유는 팔공산 일대가 전원주택 후보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 대구 시민들이 투자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겨 놓거나 집을 짓거나 수리해 놓고 주말, 휴가 등을 이용해 가끔 들어와 생활하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기록상으로는 조사시점에 따라 69가구 혹은 56가구, 일시적이라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가구는 45가구(여기에는 상주하고 있긴 하지만 외지인이라서 마을생활에 통합되지 않은 가구들도 포함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마을사람”(실제 거주하며 마을구성에 완전한 성원으로 참여)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가구는 34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대수와 인구수가 계산하는 주체의 목적과 의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된 관심을 두는 본 논문에서는 34가구, 105명의 통계를 채택할 것이다.

구암마을에는 35ha의 논, 50ha의 밭과 2,500ha의 산림이 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논과 밭의 약 1/3~1/2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구사람들이 매입한 후 원소유자(마을주민)에게 임대하고 있다. 원소유자에 의한 소작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암마을 주민으로 인식되는 34가구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중 8가구는 식당을 겸업하고 있다. 식당 겸업을 하는 8가구 중에서 7가구가 최초의 팜스테이회들이다. 이들은 민박과 함께 한우구이, 멧돼지구이, 닭백숙, 닭도리탕, 염소전골, 손칼국수, 보신탕 등 거의 비슷비슷한 음식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팜스테이사업을 시작하였다.

2002년의 농협통계 따르면 35ha의 논 중 30ha에서 친환경 우렁이 쌀을 재배하였는데 총 108t을 생산하여 3억 240만 원의 조수익을 내고 있다. 우렁이쌀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여 농협을 통해 출하하고 있다.

수매가 되지 않은 일부는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시내 아파트 단지에 직접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농협출하보다 40kg당 1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 이익이지만 도정이 가능한 농가가 4가구밖에 없어 물량이 제한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앞으로 도정시설을 더 늘려 직접 판매를 더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50ha의 밭에서 사과, 복숭아, 대추, 자두, 포도 등의 과일 및 배추, 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등의 채소류와 콩, 깨,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밖에 마을 내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마을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함)이 친환경 농원을 조성하여, 허브농장 1,000평, 친환경유기농채소농장 2,000평에서 독자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허브와 유기농채소를 판매하고 있다.

구암마을은 기본적으로 각성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0여년 전 생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가 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한 인동 장씨의 후손 4가구, 조부 때 장씨가의 사위로서 들어온 동래 정씨의 후손 6가구, 부친 때 장씨가의 사위로 들어온 윤씨 1가구 등이 친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이들이 전체가구의 1/3을 차지하면서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과 갈등과정에서 느슨하지만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가구들은 대부분 부친 때나 당대에 생계를 위해 소작농으로 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대다수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한 노인회, 청년회, 부인회 등의 공식적 조직이 있으며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이다. 마을단위 계로는 상포계가 있었지만 계원의 부모가 다 사망하여 해산한 뒤 더 이상 조직된 것이 없다. 마을범위를 벗어나 인근 지역 안에서 조직된 동갑계, 친목계 등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 개별적으로 각종 농업기술 학습과 교류를 위한 모임에 가입되는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이 마을에서는 농업관련 조직으로 팜스테이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겠다. 이 밖에 극히

일부의 농가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작목반 이외에 농업 협력 조직은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농촌마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품앗이의 경우도 벼농사 때 년 2~3회 하고 있다는 5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 인근지역이라 외지 유입자들이 많은 데다가 각성 마을이라는 마을의 특성이 농업협동 관행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4. 변화의 계기와 과정

구암마을은 팜스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구암마을의 팜스테이사업은 농협이 지도, 지원하는 농촌관광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은 ‘관광농원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198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이후 1989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그리고 2000년부터는 “농어촌정비법”(개정)에 의해 ‘농어촌관광휴양지원개발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 주말농원)’으로서 추진되어 왔다(유정규 2003: 2). 구암마을의 팜스테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관광농원, 주말농원의 수준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마을에서 최초의 농촌관광사업은 Y씨에 의해 시작되었다. 농대원예학과 출신으로 1990년부터 이 마을에 정착해 온 그는 1992년 관광농원 사업을 해 보려고 농협 직원과 함께 교육까지 받았지만 이 마을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이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주말농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부가 사놓은 2만여 평의 산에 있는 밤나무를 그루당 3만 원에 분양하여 가을에 수확하게 하고, 염소도 1마리에 15만 원에 분양하고 월 5천 원씩 사료값을 내면 다 자란 후 양도해 주는 방식으로 도시민들을 모집하였다. 이 밖에 텃밭

600여 평을 10평씩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였다(이 사업은 지금도 개인적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을 시도하던 중 농협에서 전국적으로 팜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참여 권유를 받고 1998년 농협 직원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인 마을 내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던 11가구에게 팜스테이를 하게 되면 방문자에게 민박과 1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식당운영이 합법화될 수 있다고 설득하여 가입시켰다. 원래 팜스테이 사업은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했지만 개인들이 투자를 꺼려서 처음에는 회비만 내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운영하다가 점차 가구별로 하나 둘씩 사업을 시작, 7가구가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팜스테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민박하는 손님이 거의 없어 식당으로만 운영되다가 그 중 3가구가 사과, 고구마, 감자 등으로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농사체험사업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사실 농사체험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조직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Y씨의 부인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을 하면서 교사들과 친분을 쌓아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을 유치하여 체험학습을 시키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1년 농협으로부터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받고 나서부터 7가구를 회원으로 농협의 지도와 지원 아래 체험학습을 위주로 한 팜스테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농협에서 3천만 원(2002년 기준: 농지임차료, 종자료, 주변 환경미화, 안내간판, 관리비 등)을 지원받아 공동경작지를 임차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받아 유료로 체험학습을 시켰다. Y씨를 중심으로 이전부터 사업기반을 닦아 온 데(『중앙일보』 2002년 10월 11일)다가 농협의 홍보지원(2001년 6월 MBC ‘고향은 지금’ 프로에 소개, 7월 월드컵 공식민박마을 지정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2001년 체험학습자가 5천여 명에 이룸). 그 결과 2002년 농림부

와 농협중앙회 주최의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상금 3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상금 3천만 원을 받게 되면서 상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지고,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마을의 팜스테이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즉, 이를 계기로 마을주민들로부터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농협에서도 권유하여 2003년부터 마을 공동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마을 안에는 45가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을주민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가입자격을 주어 34가구가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성마을이며 외지인들의 유출입이 많아 공동체의식이 미약했던 이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담론으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후 마을공동체 담론은 팜스테이 사업의 방향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루겠다.

## 5. 팜스테이 사업의 내용과 실행과정

구암마을의 팜스테이 사업의 내용과 실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에서 팔공산으로 가는 대로변 마을입구에 큰 입간판이 서 있어 이 곳이 팜스테이 마을임을 알린다. 마을 입구를 지나 마을 초입에 이르면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장승들이 세워져 있다. 이곳을 지나 마을 중심부로 들어서면 팜스테이 쉼터와 공동농장이 있다. 쉼터에는 300평 정도의 마당과 원두막, 200평 정도의 막사가 있고 막사 안에는 평상마루가 들어차 있고 평상마루 위에는 명석을 깔아 놓았다. 쉼터 마당 주변에는 연자방아, 돌절구, 멧돌, 지게, 춘향이 그네 등 전통문화 체험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쉼터 옆에는 5천 평 넓이의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체험을 위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 주변에 교육용으로 목화, 수수, 메밀, 조롱박, 수세미, 차조 등 토종농산물을 심어놓았다. 공동농장은 농협으

로부터 토지임차료와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받아 임차한 밭으로서 회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한다. 이와 같은 홍보용 시설과 전통문화, 농사체험 시설은 농협의 지원금과 팜스테이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매년 조금씩 확충해 왔다.

팜스테이사업의 주를 이루는 초등학생들의 체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학교 단위(특정 학년)로 교사들의 인솔 아래 쉼터 마당에 도착하면 팜스테이 회장이 환영사와 체험의 의미 등을 담은 인사말과 체험 내용과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나면 각 조별로 나누어 체험장으로 간다. 대체로 인사말은 의례적인 듯하지만 아이들이 농촌과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농촌과 농민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내용으로 성의 있게 한다. 체험은 크게 공동농장에서의 수확체험(고구마, 감자, 옥수수, 콩 등), 개별농가에서의 수확체험(사과, 복숭아, 포도, 밤 등)과 우유 짜기, 그밖에 ‘떡메 쳐서 인절미 만들어 먹기’, ‘손두부 만들어 먹기’, ‘새끼 꼬기와 짚신 삼기’ 등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자들은 희망하는 체험 종류를 신청하는데 보통 3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한다. 이를테면 인절미 만들어 먹기-고구마 캐기-새끼 꼬아 짚신삼기 혹은 콩사리, 또는 인절미 만들어 먹기-사과 따기-우유 짜기 등을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식이다. 각 체험장에서는 도우미들이 체험방식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 주고 나서, 체험자들이 작업할 때 도와준다. 도우미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주머니들이 담당하는데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감 있게 한다. 예상과 달리 설명하는 방식도 세련되어서 교육도 받고 노력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인다.

공동농장에는 호미 등 수확작물에 따라 작업도구와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는 작은 망주머니가 준비되어 있다. 먼저 도우미들이 망주머니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면 체험자들이 따라 한다. 수확한 것은 각자 망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 간다.

개별 농가에서의 수확 체험은 공동재배지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사과, 포도 따기, 알밤 줍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별농가로 가서 하는 것으로 밭주인의 관리 아래 같은 요령으로 진행한다. 과일수확체험은 정해진 개수만큼만 따가도록 하는데 아이들은 과일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과일이 영근 나무를 보고 신기해하며 자기 손으로 하나씩 따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인절미 만들어 먹기와 손두부 만들어 먹기, 새끼 꼬아 짚신삼기 등도 도우미의 지도로 하는데 떡메를 치고, 맷돌을 돌리고, 새끼를 꼬는 것이 아주 서툴지만 연신 방법을 물어 가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체험준비가 되는 동안, 또는 자기 순서가 돌아 올 때까지 짬짬이 지게도 지어 보고, 절구도 쪄 보고 그네도 타면서 서로들 서투른 동작에 웃고 떠든다. 체험자들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4, 5시간 동안 머물면서 3가지 체험을 하고 나서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쉼터의 막사 안 명석 위에서 함께 먹고 돌아간다.

이러한 체험들은 각각 가격이 정해져 있어 체험한 종류에 따라 요금을 낸다. 대체로 초등학생들은 5천 원~9천 원 어치의 체험을 하는데 체험비는 현장학습료로 학생들이 부담하며 농협에서 일선한 경우(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농협에서 학교단위로 관광버스 대절비를 지원한다. 공동농장과 전통문화 체험에서 벌어들인 돈<sup>4)</sup>은 물론 팜스테이회의 수입으로 잡히지만, 개별농가에서 행하는 체험 수입에 대해서는 팜스테이 회에서 일선 수수료로 10%만을 받는다. 개별농가에서의 체험수입은 직접 수확하여 출하하는 것에 비해, 인건비와 포장비도 들지 않고, 아이들이 손이 닿는 높이에서만 품질에 관계없이 따기 때문에 체험이 모두 끝나고 나면 높은 곳에 있는 질 좋은 사과를 수확하여 출하할 수 있어 수입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사과농장을 하는 k씨의 경우를 보자.

K씨는 2006년 2천 평의 사과밭에서 550 상자를 수확하였는데 그 중 100

4) 2006년도 총수입 74,906,039원 총지출 32,382,828원으로 42,523,811원의 순수입이 발생하였다(팜스테이 회계장부).

상자는 직접판매(자매결연 아파트 직판 50상자, 택배 50상자)를 하고 300상자는 농협 위판장을 통해 판매하고 150상자 분량을 체험에 사용하였다. 직접판매와 위판장 판매의 경우 1상자 당 평균 3만원에 판매하였는데 체험자는 3천 5백 명을 받아 7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70만 원을 팜스테이회에 수수료로 내고 나면 상자 당 4만 5천 원 정도로 판 셈이고 이 경우는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가(품질이 떨어지면 상등품의 절반 혹은 1/3로 값의 차이가 크게 난다) 인건비와 포장비가 한푼도 들지 않은 것까지 계산하면 체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렇듯 체험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 판매보다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체험제공자 선발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만이 일기도 한다(일부 농가들이 팜스테이 운영방식에 다소 불만을 갖는 부분은 개별농가 체험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팜스테이회는 개별농가가 제공하는 체험의 질에 대해 관리하고 규제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 사과농장에서는 어차피 체험자들이 사과를 2개만 따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는 사과 알 수를 늘릴수록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적과를 하지 않아 사과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당한 후 다음 해에 체험자 배당이 금지되었다.

팜스테이회 수입의 3할 정도는 도우미 인건비로 지출된다. 도우미들은 일당으로 남자가 5만 원 여자가 3만 원을 받는데 60세 이상 80세에 이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하루 4시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일하여 벼는 수입 치고는 꽤 좋은 편이라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일거리가 적은 계절에는 순번을 정해서 동원하고, 일거리가 많은 계절에는 일손이 딸려 의무적으로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남자 10만 원 여자 5만 원이었지만 팜스테이회를 마을 주민 전체에 개방하면서 노인들과 여자들의 참여가 많아져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마을주민들은 팜스테이사업을 통해 노인과 여자들이 수입이 좋아졌다며 만족해한다.

## 6. 갈등과 담론화

이 마을에서는 팜스테이 운영을 둘러싸고 몇 가지 갈등이 발생해 왔는데 이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팜스테이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게 되었다. 갈등이 처음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주최의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상금 3천만 원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상금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주민들은 팜스테이 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몇몇 식당업주들의 새로운 식당운영방식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금을 받고 나서부터 팜스테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몇몇 식당업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농협에서 마을 전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서 상금은 몇몇 사람이 선도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받게 된 것이긴 하지만 마을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3은 마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의 팜스테이회는 전적으로 자기들 사업의 성과이므로 팜스테이 회원들이 알아서 쓸 일이고 다만 약간의 금액을 마을회관시설 개선에 회사하겠다는 주장으로 맞서 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밀고 땡기고” 하다가 팜스테이 회측이 서둘러 200만원만 마을에 회사하고 나머지로 체험용 도구를 구입해 나누어 가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주민들은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마을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팜스테이회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요구는 “마을공동체” 담론으로 치장 되기 시작하였다. 마을주민들은 팜스테이회를 주도해온 사람들 일부가 이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전입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팜스테이회가 사업적인 관점에서 자기들 이익만 챙길 뿐 마을공동체를 위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마을주민들은

여러 차례 농협에 찾아가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사업으로 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결국 농협이 이 주장을 수용하고 팜스테이회를 설득하여 전체 마을주민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기존회원들 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구암 팜스테이회에서 상금을 받을 당시 회장은 J씨였다. 그는 이 마을의 1/3을 차지하는 정씨와 장씨로 구성된 친인척집단에 속하며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능력과 야심이 있어 2005년 공산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긴 했지만 마을 안팎에 인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마을 내에 친인척이 비교적 많고 정치적 목표가 있었던 그는 팜스테이회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Y씨와 팜스테이회의 진로를 놓고 수차례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회장직을 내놓았다. J씨가 회장직을 내놓자 이른바 “전입자”인 Y씨가 맡게 되는데 이때부터 마을사람들이 공동체담론을 내세우며 팜스테이회의 개방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게 되고 결국 관철시키게 된 것이다. 일단 마을주민 전체가 팜스테이회에 가입하게 되자 다시 마을의 “원주민”인 J씨가 회장으로서 가장 적격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의 압력을 받은 Y씨는 결국 회장이 된 지 3개월 만에 물러나고 J씨가 다시 회장이 되었다. 지금도 Y씨는 J씨가 원주민이고 친인척이 많아 동네 어른들을 내세워 자기를 몰아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후 J씨와 Y씨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 갔다. 이 과정에서 Y씨는 마을주민들과도 소원해지면서 고립되고, 독자적으로 개인 팜스테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회장이 된 J씨는 팜스테이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공동체 직영사업”)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서의 체험은 가급적 줄이고 공동농장을 확대하여 공동농장체험 위주로 운영하였다.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농사(고구마, 감자, 콩 등)를 개별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개별농장 체험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체험자 배정을 원하지만 사과, 포도, 밤 등 공동농장에서 재배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농가에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한두 사례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독자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Y씨가 고구마 밭이 부족해서 고구마 체험을 다른 농가에 위탁하려고 하자 팜스테이회에서 그 농가에 체험자를 배정함으로써 Y씨에게 협조하지 못하게 한 경우였다. 그러나 고구마와 콩 등을 재배하는 개별농가의 입장에서는 체험자를 받는 것이 이익이므로 개별농가에 체험자를 배정하지 않는 팜스테이회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Y씨는 이 마을에서 팜스테이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독자적으로 주말농장, 체험관광을 실행하여 사업적으로 성공하였고 그래서 메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알려져 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팜스테이 사업을 도입할 때 Y씨를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업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사업적으로만 접근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팜스테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의 요구와 조화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따라서 팜스테이를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사람들은 그가 약점을 갖는 부분인 “마을공동체”담론을 내세워 압박했던 것이다. Y씨는 회장직을 내놓고 나서도 팜스테이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팜스테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체험자들을 따로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도우미 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J씨의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여 여러 차례 대립하기도 하였다.

J씨는 이러한 Y씨와의 대립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자기들의 대립의 상황을 “원주민 대 전입자”라는 이분법적 틀로 규정하고 전입자인 Y씨의 반공동체적 개인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담론을 팜스테이운영의 원칙으로 도입하여 체험

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전통적 마을공동체의 특성인 “농심”, “시골 인심”, “탈 상업주의”, “순수, 자연주의”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제 현대사회가 다시 희구하고 있는 전통문화는 농촌마을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팜스테이사업의 방향도 공동체 직영농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마을 내에서 팜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는 Y씨와 S씨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 다른 잣대로 평가한다. Y씨에 대해서는 “원주민이라면 그렇게 할 리 없고, 원주민이 아니니까 쉽사리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봐야 왕따만 당할 뿐이지”

원주민이었지만 현재는 대구에 살면서 출퇴근하며, 또 팜스테이 회원이면서 독자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S씨에 대해서는 “그는 경우에 어긋나는 짓은 안한다. 농사도 열심히 지었다.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유치원 생 받는 것 정도야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은 Y씨의 사업과 팜스테이회의 사업을 비교하면서 체험사업의 정신을 언급하는 내용들이다.

“팜스테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따지고, 사업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마을에서 하는 만큼 공동체의식을 결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농촌인심이 더해지지 않는 체험은 사업적이다.”

“사업적으로 가면 오래 못 간다. 농심이 깃들어 있어야 오래 간다.”

“도시인들은 농촌마을의 순수함을 원한다. 순수함에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J씨의 비난에 대해 Y씨가 내세우는 것은 경영주의 담론으로서 “탈시골의식”, “합리적 경영”, “탈 폐쇄주의”, “경쟁주의”, “발전”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

“촌사람들이라 도시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다르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한다.”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소득도 높다. 과거에 7가구가 할 때는 가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수입이 훨씬 좋았으나 지금은 (도우미) 일당 따먹기에 불과하다.”

“팜스테이 사업에서는 아이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현재는 팜스테이가 포화상태다. 마을마다 경쟁이 치열하다. 색다른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홍보를 잘해야 살아남는다. 군단위로 경영하면 규모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팜스테이가 성공하려면 농협의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원받는 만큼 발목이 잡힌다.”

Y씨의 이러한 주장은 농사규모도 작고 노인이나 여자만 있는 가구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으나 독자적으로 체험학습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은 드러내 놓고 동조하지는 않지만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농가들이 팜스테이회의 틀을 지키면서도 체험학습자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Y씨의 “일당 따먹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은 현재의 팜스테이회의 방향과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J씨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사업이 실제로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씨와 동조자들은 직거래 확대에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마을공동체” 담론은 정치적 선택이긴 했지만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마을, 농업의 활로 모색,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소비자들이다. 개념들에게 농심을 가르쳐야 하고, 자연의 순수함을 일깨워 줘야 한다.”

“애들이 소풍처럼 와서 놀다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친힐아버지 할머니처럼 성심껏 잘해주면 추억으로 남는 있을 것이다.”(J씨)

“농촌과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농민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도시소비자들의 인식을 농민이 바꿔줘야 한다.”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가져가는 고구마는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도 싸고 자기가 직접 캔 것이기 때문에 잘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물론 가족도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K씨)

## 7. 지역식품체계의 형성

구암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주의는 마을이 발전하여 주민들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팜스테이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마을 주민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의 하나가 공동농장 위주의 운영이다. 따라서 팜스테이 사업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공동농장을 확대하고 모든 체험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사과, 밤 등 과수)를 제외하고는 공동농장에서만 하도록 하였다. 공동농장에서는 토종작물들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여기서만 체험학생들을 받아 회원들이 도우미로 참여하여 가르치고 또 작업을 돋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농장의 확대운영의 결과로 모든 회원농가가 체험용 작물경작과 체험 도우미로 일당을 받고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sup>5)</sup> 그러나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언제든지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개는 개별 농가의 농사에서 유용성이 적은 노령자와 여성 노동력이 동원된다.<sup>6)</sup>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노령자와 여성 등 이른바 열악한 노동도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시스템은 직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도시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파는 크고 모양이 좋은 농산물을 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한 것이라고

---

5) 팜스테이회에서는 2006년도에 도우미 인건비로 23,339,260원이 지출되었다(팜스테이 회계장부).

6) 전체 인구 105명 중 80대가 3명, 70대 20명, 60대 11명, 50대 16명, 40대 20명, 30대 2명, 20대 이하 33명 등인데, 80대 3명 중에서 1명(여성: 연간 30회 이상 참석), 70대 20명 중 17명(여성 10명), 60대 11명 중 7명(여성 5명), 50대 16명 중 8명(여성 4명) 40대 20명 중 7명(여성 4명) 등이 팜스테이 사업(도우미와 공동농장 농사작업)에 참여한다(전체 노동인구 중 57%). 이상의 통계에서 70대 이상 노령자의 참여 비중이 크며(전체 참여자 중 45%), 60대 이상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다(64%)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크기와 모양이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경향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다. 인근 도시주민과 직거래 관계를 지속시킴으로써 소규모 농가들이 시장용 상품으로 부적절한(양이나 표준화의 정도 혹은 모양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농장의 확대운영과 직거래의 정착은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나의 작은 지역식품체계를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2가지 시스템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체험용 공동농장 구축과 운영을 보자. 그런 투어리즘의 한 품목으로서 농사(수화)체험이라는 관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판매에 대응할 목적으로 편성된 기존의 농업생산체계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생산체계를 변화시킨다. 다양한 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모 위주의 단일 품목 생산체계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전환시키고, 공동체적 사업으로 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 공동체 농장에서는 다양한 토종작물을 재래 방식으로 생산한다. 여기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노령자들과 여성의 노동력이 오히려 유용하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노동보다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적 생산방식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바탕한 섬세한 노동력이 오히려 유용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을 시키는 데도 노령자들과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어린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농장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학습에서 보여주는 노인과 아주머니(노령자와 여성)의 행동양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농업과 전통적 생활양식, 인간관계 혹은 감성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체험교육과정에서 보여주는 노인들과 아주머니들의 푸근하고 정감을 주는 도우미 활동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농촌과

농민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날 경험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감자 캐기였습니다. 마을 할머니께서 조그만 자루와 호미를 주시고 감자 캐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따라서 해보니 흙 속에 묻혀 있던 감자덩이가 감자줄기에 줄줄이 매달려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 구암마을에는 저희 같은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손자, 손녀가 돼드릴게요. 저는 나중에 커서 구암마을처럼 좋은 마을의 이장이 되고 싶어요.”(4학년 A군 체험기)

“내가 농촌체험을 해보니 농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참 포근하였다. 이 때까지 농촌, 시골에 가기가 싫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또 가고 싶고 좋아졌다. 앞으로는 농촌을 사랑해야겠다.”(5학년 B양,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미중도 나오시고, 새끼줄도 만들어 주셔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친근했다.”(5학년 C양,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예전에 농촌마을은 조용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어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 나도 커서 농촌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기 때문이고, 사람들도 친절하여 살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5학년 D군,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나는 할머니 댁이 시골이라서 낯설지가 않았다. 나는 농촌이 반가웠다 … 체험을 다하고 나니 우리를 위해 애쓰신 구암마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했다.”(5학년 E양,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농촌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지으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나도 농촌사람들처럼 남한테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그리고 다음은 이 학생이 쓴 동시이다.

“농촌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의 친구/ 농촌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우리의 먹거리/ 농촌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친절을 주는 동네/ 비록 자신을 죽이지만 행복할 것만 같은 농촌.”(5학년 F군,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공동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체험도 우미 활동이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포근함과 넉넉함은 아이들로 하여금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심을 느끼고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어린 시절 깊은 인상을 받은 아이들은 이 마을을 다시 찾게 되고 이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애착을 갖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이들이 자기 가족과 마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식품체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연 1만 2천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먹는다. 이 농산물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자연과 지역 친화적인,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정성이 담긴,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가해진 애착이 가는 농산물이다. 이러한 식품을 이러한 의미로 소비하는 소비체계 자체가 하나의 지역식품체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직거래에 대해서 살펴보자. 팜스테이를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현재 독자적으로 농사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거래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은 농사체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편이 수입도 훨씬 낫다. 그래서 체험을 마친 사람이 작물을 사가고 싶어 해도 체험용으로 모자랄지 모른다면 팔려고 하지 않는다. 간혹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관계에서 거래한다. 농산물을 직접 사고파는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비해 팜스테이회에서 추진하는 직거래는 의미가 다르다. 팜스테이회에서는 공동농장을 만들어 체험용 작물을 조달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활용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공동농장의 비중이 작아 체험자들을 회원농가에 배분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재배한 농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입도 높았지만 공동농장을 확대하고 나서부터는 개별 회원농가에 체험자를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판로가 막히게 되었다. 공동농장을 통해 공동체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판로가 막힌 것이다. 직거래의 추진은 이들 농작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체험용으로 소화하지 못 한 회원농가들의 농작물을 직거래로 흡수하여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직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을과 도시소비자집단(체험학생들의 교사나 학부모 혹은 아파트부녀회) 사이에 집단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며 팜스테이회에서 관리한다.

팜스테이사업 초기에는 마을에서 대구시내 초등학교들에 홍보물을 보내 체험학습을 유치했지만 지금은 농협이 자체 조직을 통해 일사일촌(一社一村: 이 경우 社는 회사가 아니라 동, 아파트단지 등이다)과 일교일촌(一校一村)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어 많은 학교들과 비교적 쉽게 연결되고 있다. 이 경우 먼저 동, 아파트단지 대표들이나 학교장과 간부교사들이 이 마을을 방문해 자매결연식을 갖는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서는 이들에게 마을을 소개하고 음식대접을 한다.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며칠 뒤에 학교 일정에 따라 학교단위나 학년단위로 또는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체험을 하러온다. 이 때 농민들은 인솔교사들(거의가 주부들이다)이나 함께 온 어머니들, 또는 아파트 주부들에게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장점(상수도보호구역의 청정한 자연에서 생산한 친환경재배 농산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매입을 권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접 사가기도 하고 택배로 주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는 대개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학부모나 아파트부녀회 회원들을 마을로 초대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농작물을 싸주기도 하여 시골의 후안 인심(이른바 “농심”)에 감동하게 만든다. 대접받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이 농산물을 사고 파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모두 팜스테이회의 이익 비축금으로 충당한다.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A아파트 3단지 부녀회와 결연을 맺고 있는데 수학철에 초청하여 견학을시키고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선물로 싸주었다. 그 뒤로 부녀회 주부들이 몇 명씩 체험하러 오면서 친해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 마을에 와서 농산물을 사가기도 하고 택배로 주문하기도 한다. 내당 3동에 대해서도 농협에서는 실적을 위해 일사일촌의 명목으로 결연을 맺도록 주선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가을에 초대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지속적 관계를 맺어갈 계획이다. 우리가 농심(農心)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면 잘 될 것이다.”(팜스테이 회장)

이 네트워크가 좀더 발전하면 부녀회와 합동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 마을 농산물(사과, 고구마, 감자, 콩, 채소 등)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일단 맺어진 유대를 계속 이어간다.

이상과 같이 상호이해와 친밀감에 바탕한 직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하나의 작은 지역식품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8. 결론

이제까지 소개된 지역식품체계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대항하는 이념적 지향을 갖는 집단의 의식적 노력으로 시도되어 온 것 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는 지역식품체계의 논리를 확인하고 그 유형을 추출해 내는 것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식품 체계 구축과 연구에 있어서 후발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진 국가들에 서 시도되고 형성된 유형을 준거로 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식품체계를 글로벌한 논리와 조직을 갖는 식품체계를 대체할 “특정 지역”的 지역적 논리와 조직을 갖는 식품체계라고 본다면 지역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역식품체계를 구축한다고 할 때 특정한 형태 의 식품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논리와 그 폐해(혹은 파괴성)에 대항할 수 있는 식품체계를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농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역식품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지에서 그린투어리즘은 체험관광을 위주로 하는 팜스테이 사업

으로 시작되었다. 농촌관광에 관심을 두고 사업적으로 접근해왔던, 외지에서 전입한 리더를 중심으로 식당업을 겸하는 7농가가 참여하여 시작한 체험관광은 초등학교 현장학습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성공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초기사업 참여자들과 마을주민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다.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담론으로 주민 전체의 참여를 정당화하고 초기사업 참여자들은 경영주의 담론으로 맞선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마을 토박이이며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J씨가 공동체담론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리더로 등장한다. 결국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사지의 농촌관광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중요한 변화는 마을 공동농장을 확대한 것이다. 공동농장에서는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재배해 왔던 다양한 토종작물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배하고 그 작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을 시킨다. 우선 공동재배는 생산체계와 노동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시장판매를 위한 소품종 다량 생산체계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의 변화와 시장생산에서 소외되었던 노령자와 여성의 노동이 주요 노동력원으로 활용되는 변화가 그것이다. 그 결과 이들이 주축이 되는 영세소농의 생존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체험교육은 학생들이 지역농업과 전통적 생활양식, 농촌의 인간관계 혹은 감성에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도 노령자들과 여성들의 따듯하고 푸근한 언동과 섬세한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험학습은 학생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매개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마을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직거래를 위한 친밀한 네트워크로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마을 농가에서 생산된 시장판매에 적합지 못한(시장이 원하는 수량, 규격, 품질 등에서) 작물들까지 거래된다. 이로써 농가는 영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도시소비자들은 얼굴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관계로서가 아니라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지속성이 큰 것이다.

이상의 변화들은 조사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작은 지역식품체계<sup>7)</sup>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영농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소농생산 체계의 존속이 가능해지며, 생산자-소비자의 대면적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이다. 세계식품체계에 대한 대항과 대체는 이러한 작은 마을단위 지역식품체계들이 무수히 반복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접수일(2008년 4월 11일), 논문심사일(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2008년 6월 23일)

## 참고문헌

### 김종덕

- 2003 “WTO의 농업구조화: 문제점과 대안”, 『농촌사회』 13(1): 239-261.
- 2004a “미국의 농민시장”, 『사회연구』 15: 213-238.
- 2004b “미국의 공동체지원농업(CSA)”, 『지역사회학』 5(2): 153-176.
- 2005 “식량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농정연구』 15: 101-124.
- 2006 “지역식량체계의 구조와 동학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

7) 지역식품체계에서 지역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는 일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 분석한 단위를 지역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식품체계에서 지리적, 공간적 범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상의 범위의 크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된다. 또 이 글에서 묘사한 생산과 소비의 양상을 지역식품체계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실질이고 체계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규모도 작고 아직 확고하게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 정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작은 변화에서 큰 의미를 포착하려고 하였다.

학회지』 17-2.

김철규 외

- 2004 『농산물의 대안유통모델연구: 사회관계론적 접근』, 명진씨앤피.

김태연

- 2003 “농촌관광의 개념과 원칙”, 『농정연구』 8: 13~41, 농정연구센터.  
2005 “영국의 로컬푸드시스템 동향과 사례: 대안적 푸드시스템의 국내  
외 사례”, 『농정연구』 15.

김홍주

- 2006 “생협 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계의 모색: 두레생협 생  
산자회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6(1): 95-142.

농촌경제연구원

- 2007 『농업전망 2007(1)』

박덕병

- 2005a 미국의 공동체 지원 농업, 『농정연구』 15: 13~45.  
2005b “미국의 local food system과 공동체지원농업(CSA)의 현황과 전  
망”, 『농촌사회』 15(1): 133- 174.

박덕병 · 조록환

- 2002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로  
서 그린투어리즘”,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02년 춘계 학술심포  
지엄 자료집, 『21세기 새로운 지역농업발전 모형설정』.

송미령 · 성주인

- 2005 “농촌관광의 현실과 비전”, 『농업전망』 2005(1): 183-193.

송미령 등

- 2002 『도 · 농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유정규

-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농정연구』 8:  
109-153.

임경수

- 2003 “한국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 『농정연구』 8: 171-193.

정기환

- 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2.
- 2002 “우리나라 농촌개발 정책의 방향”, 『농정연구』 2: 1-20.

최동주

- 2003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농정연구』 8: 195-218.

한도현

- 2005 “도농직거래 운동의 실제와 의의”, 『농정연구』 15: 141-165.

허남혁

- 2006a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 및 문헌검토”, 『2006 후기 사회학대회』 12[1].15.
- 2006b “제고장 먹거리 담론: 쟁점과 가능성”,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Gradwell, Shelly, Jerry Dewitt, Diane Mayerfeld and Richardo Shavador

- 1999 “Local Food Systems for Iowa”, <http://www.extension.iastate.edu/Publications/PM1692.pdf>

Halweil, Brian

- 2004 *Eat Here*, Worldwatch Institute, 『로컬푸드』(2006), 김종덕 등 (역), 서울.

Heffernan, William

- 1997 “A Concentr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unpublished paper, Department of Rural Sociology of Missouri.

Hendrickson, Mary

- 2001 “Community Food Systems: Visions of a Different Food System,” <http://www.foodcircles.missouri.edu/overview.pdf>

Jarosz, Lucy

- 2000 “Understanding Agri-Food Networks as Social Relation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17: 279-283.

Trobe, H.

- 2002 *Local Food: future directions*, Friends of the Earth

Venn, L. et al.

2006 “Researching European ‘alternative’ food networks: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rea* 38(3): 248-258.

〈Key concepts〉: local food system, greentourism, peasant community discourse, community farm

## From Green Tourism to Local Food System

Kim, Choon Dong\*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cent development of local food system in a rural village neighboring a large city, which resulted from green tourism.

Green tourism has two objectives: tour business to increase the income of farming households and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At the early stage of green tourism in the village, the participants of farm stay business put more emphasis on the tour business. But as the farm stay business was settled down successfully, other villagers who were excluded from the business demanded their share in green tourism, which resulted in the shift of its objective to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The conflict between those two groups of villagers appeared in two competitive discourses, business and community. After all, the community discourse prevailed over the business one. Then the village's green tourism moved in a new direction which brought about some changes in the systems of production, labor, and market so as to promote its business. For example, cooperative farms launched adopting the form of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the

---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ole of old people and women in the workforce grew greatly; a direct transaction network of agricultural produce between villagers and urban consumers were organized.

As a result of this process, local food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system, plant diversity, local landscape, and traditional diet were recovered; the production system of small farmers became sustainable; trust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was established through face-to-face interactions.